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상의고변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초파일만 부처님 오신제 아니라 觀하는 마음에 찰나찰나 함께 해”

경찰 직분 다하려면...

문 저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대부분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관재 수가 긴 사람들이 그날그날 나와 인연을 맺고 흘러가는데 수많은 폭력, 시비, 소란 등의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안정감을 잃고 정신 없이 해마다 결국 각자 알 수 없는 인연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건의 피해자라고 동정할 필요가 없고 가해자라고 미워할 필요가 없이 이들은 각자 지은 인연에 의해 얽히고 설켜 있어 생각이 굳어지더군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성을 잃은 사람의 모습은 공격적이고 단순합니다. 갑수룩 흥분되는 비인간적인 사람들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평상심과 냉정함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시를 실행하는 불자로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온 까닭은 무엇이고 이들이 나와 만난 것은 과연 악연일까요? 악연이라면 이들에게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나는 단지 이들이 거쳐야만 할 사람일까요? 스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답 지장보살이 그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중생을 극락왕생하게 하고 맨 나중에 성불하겠다고요. 죽은 사람들의 줄이 아무리 끝날 때를 기다려도 끝이 나지 않더라고요. 가던 사람이 또 오고, 가던 사람이 또 오고, 갖 갖 떨어진 사람이 또 다가오고 이러니까 뭐 끝날 사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끝없는 진리로구나. 나는 몸이 있든 없든 소임이 있거나, 그대로 거기까지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리라. 영원히, 틀어지고 나가고 없구나.” 이랬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들고나는 데에 손색이 없고 결핍이 없으니까요. 뜻으로 말하자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연이다 생각을 하면 악연이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악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수억 겁 공안을 거쳐오면서 어떤 일인들 안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에 악연이다 생각하지 말고 예전에 물렸을 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서 말걸 때에 바로 거기까지 통신이 돼서 그 마음도 아리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연이든 악연이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은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거든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을 내 불바퀴에 넣기만 하면 악연이라 할 지라도 타 버리고 시원한 샘물이 나와서 우리가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쓸 수 있게 된다 이거지요. 마음의 발전이 됐다면 아주 영리하게 바뀌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의견과 지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사람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지면 구름이 모였다가도 흩어져서 탄 구름하고 또 모이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따로 없고,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내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 한 찰나다가 한 찰나 가고, 한 찰나다가 한 찰나 오고 이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찰나그네인 것이죠. 나그네 생활 한 찰나 할 때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벗어나기도 하고, 남들이 우려해보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고, 부드럽게 남한테 말해줄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있는 탓으로 돌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보았을 때 물렸을 때의 내 모습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아량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이 업보와 인연에 고달리지 않고 살 수 있겠음 돌아다니게 이끌어 줄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강해지려면...

문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스님을 법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습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믿음이 강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선을 많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주인공을 불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먼저 자기가 못났든 잘났든 무조건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그 누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조금 믿는 것 같다고도 상황에 부딪치면 ‘이거 뭐 찾아도 안 되는데.’ 이라고 별칭 넘어지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듯 저렇듯 믿는다는 믿는다는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지금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잘 되거나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조금만 뭐가 안되면 만날 찾아도 마참가지라고 합니다.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데 말입니다.

공부할 때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 하나? 기 위해서 사람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본다고 그럴까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경계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하!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금방 없어지지만, 이런 게 또 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까? 주인공을 아무리 찾아도 안돼, 하면 영 해결이 나지 않게 되죠. 정말이지 허구장장 못났든 잘났든 모두 자기 자신을 믿고 그 자리라고 해도 안 틀어지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도 실천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서 지금 내가 금방 죽는 대도 외는 하나 잠깐씩 줄 아느냐, 죽었다면 죽고 살릴 테면 살리고 마음대로 하든 그냥 놔버린다면 되는 건데 그냥 모두 불등고 놓여지니 그게 오히려 인과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기간도 불등고 애지중지하고 그러는 게 모두가 인과가 되는 겁니다. 조

부처님과 함께 하고픈데

문 스님, 저는 요즘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절로 뛰어들어 갑니다. 그리고는 부처님 오신 날을 온 세상에 알리는 제등행렬 때 들고 나갈 장엄물을 만드는 일을 여러 법우님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제등행렬에는 월드컵이라는 세계인이 함께 하는 행사가 있어 더욱 의미가 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만 부처님이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끼고, 일상 속에서는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스님, 항상 부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가 성공리에 끝나도록 기원해 주세요.

답 우리가 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도 저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에만 계시고 지금은 아니 계신 게 아니라 현실의 여러분과 미래에 깨우칠 분들과 삼세가 공해서 들 아닌 한마음입니다. 오늘이 영원한 오늘이니 여러분 마음에 찰나찰나 드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 오신 날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일체 제불과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한마음으로서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관하면 항상 찰나 찰나 들고나옵니다. 들고나오는 줄 모르게 들고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고 들이 없이 나고 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은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듯이 일 초도 지나지 않고 항상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항상 들고나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들고나신다는 뜻의 노래 일체제불의 마음 아시죠? ‘일체제불의 마음’ 거기에 그런 이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치만 아신다면 몸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통을 굴릴 줄 안다면 공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부처님도 이렇게 탄생해서 돌로 보지 않으시고 일대사의 인연을 맺어서 두루두루 보살피시고, 이게 됐다가 됐게, 이 모습이 됐다 저 모습이 됐다 하시면서 진화를 시키고 스스로 그렇게 되게끔 해 놓고 하시는데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전 세계를 빛나게 하고, 우리 국민을 짊어진 데서 벗어나게 해야죠. 그리고 머리가 많이 깨어나서, 지금 세상은 육신의 기운이 세계의 일을 하고 사는 게 아니예요. 머리 두뇌로 사는 세상이 됐다고 항상 그러죠. 정신을 헛고 정신을 잡아먹고 사는 세상이라고요. 그럴 때 정신 차려서 내 정신 헛기지 않고 머리를 잘 쓰면 바르게 돌아갈 수 있겠죠. 관하는 것은 기를 치는 거와 같으니 가 항상 마음에 기를 채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믿음이 흔들려요

문 스님, 오랫동안 저를 치료해 주신 의사선생님께서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으니 조용한 곳에서 마음 편하게 쉬면서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서 생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몸이 젊고 건강했을 때는 근본을 믿고 관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늙고 병들어 홀로 남게 되니 선원에도 자주 가지 못하고 그토록 간절했던 마음도 언제 그랬나 싶게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저의 근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의 근본에 의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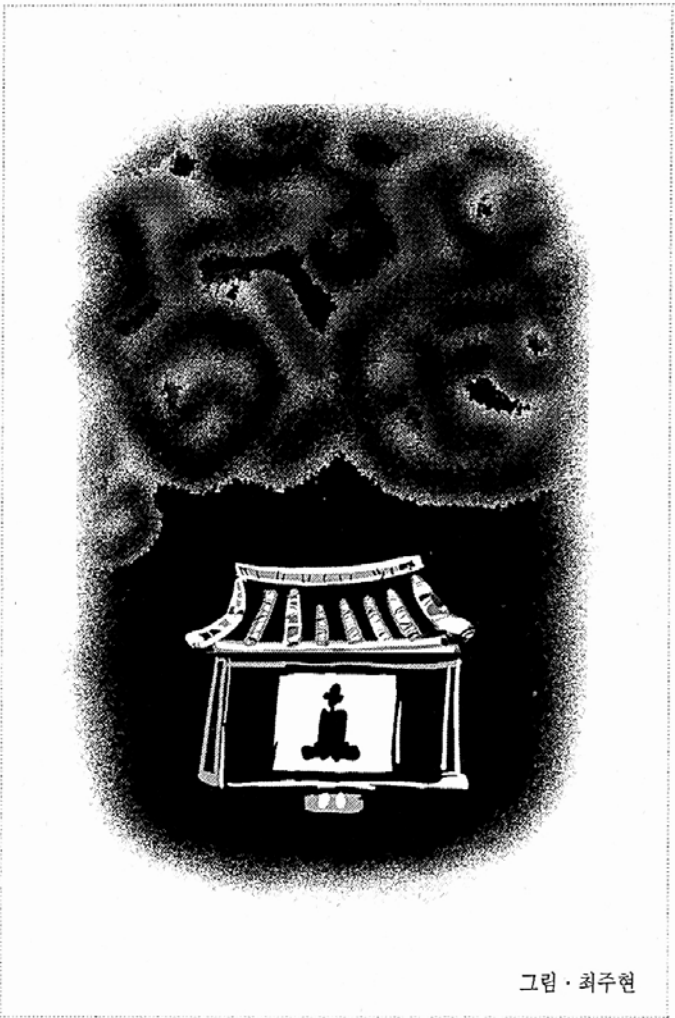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전 반야줄 잡고 살아 간다면 저세상 갈때 저승사자 아닌 보현보살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문 스님, 오랫동안 저를 치료해 주신 의사선생님께서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으니 조용한 곳에서 마음 편하게 쉬면서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서 생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몸이 젊고 건강했을 때는 근본을 믿고 관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늙고 병들어 홀로 남게 되니 선원에도 자주 가지 못하고 그토록 간절했던 마음도 언제 그랬나 싶게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저의 근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의 근본에 의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할 수 있을 만치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것을 다, 즉 말하자면 모든 걸 채근해서 좋은 거는 들고고 나쁜 거는 내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망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 몸통이든 한 나라의 대기관과 같이 세포 하나 하나에서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다 채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한번 해서 내리낸 결정이 된 것과 같아서 바로 두뇌로 통신이 되고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전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안에서만 안대로 결정적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안에 고장이 났을 때는 안에서 모자라는 걸 채워서 보강해야겠죠. 호르몬이 모자라면 호르몬도 채워가면서 하는 거고, 또 바깥의 일들이 위태롭게 될 때는 세포의 법계에서 의식들이 나가서 마음속으로 들고남이 없이 들고나면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사시는 걸 보면 자기 마음을 자기 가 정리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된다 안된다 하면서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안 믿어지는 거는 여러분이 자기 몸통이

그런데 왜 그 구식 옷을 입고 그게 떨어질까 봐 벗어질까 봐 애를 쓰겠습니까? 내 맘대로 유행 옷을 입고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으니까 또 오래 살게 되는 거구요. 그러니 젊었을 때나 지금 늙었을 때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관하십시오. 그 마음이 늙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는 ‘나’가 이 몸통이기를 이르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서글픈 마음도 다 놓고 참주인을 믿어서야 합니다. 그 어떠한 생각이 올라오든지 말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문 우리나라도 지금 이천만 불자가 불교를 믿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자는 참선을 통해서 또 혹자는 염불을 통해서 또 혹자는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 진리를 터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절에 갔을 때는 어느 스님께서 17년 동안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우리 선원에서는 한마음의 주인공에 일체를 맡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불자들이 어떠한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주좌와 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벌어진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무효죠. 안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벌어지니까 자기부터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생산인 이 육체가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화두만 들어도 딱히 들어 갔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끝까지 때문입니다. 세계를 인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여서는 모든 걸 인방에서 볼 수 있는 데다가 평평한 돌이기는 머리 때문입니다. 육체가 탄생한 것도 화두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것도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가 화두를 또 받아 가지고 하니까 걸출 수 밖에도 행주좌와 관법은 지금 시대가 요하는 겁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 때는 반드시 시대를 순응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뒤를 쫓아가려는 게 아닙니다. 앞장서서 가려는 거지. 불을 밝혀서 앞장서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주좌와 관법으로 공부 해야 합니다.

18면으로 계속

‘남의 탓’만 하니 악연 될 수 밖에...

건 없는 사랑을 주려면 아예 그냥 놓고 마음의 줄을 잡고서는 탄 데로 가면 끌어당기고, 탄 데로 잘못되게 가면 또 끌어당기고, 그렇게 마음의 줄을 잡아가지 마음이 잡히지, 말로 몸을 잡으려고 그러니 그게 잡혀집니까?

마음의 줄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설이 돼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마다 전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의 스위치만 누르면 모두 불이 들어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 식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다 밝혀 살수가 있을 텐데 밝혀 줄 줄을 모르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것만 법이 아니라 안되는 것도 법이고, 되고 안되는 양면을 다 봐서 같이 굴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진실하다면 믿음이 강해질 것이고, 믿음이 강해지면 어떤 게 와도 놓고 저런 게 와도 놓고 양면을 쥐고 중심의 중용을 잘하면서 결핍없이 굴릴 겁니다. 그게 수레공법이죠.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제신다는 거를 알고 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성을 믿는다고 할 때 ‘오로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로지라고 할 때 ‘정(定)’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로지 내 불성을 믿는다, 진짜로 믿는다 할 때 정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오로지 정에다 놓고 들고고 내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일거수일투족을 들고 일거수일투족을 내고 하는 것이 모두가 부처님 법이자 여러분의 법입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들고고 내는 것을 알고 지금 현상 시대에 들고고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가지고서 말합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 만생의 생명이 불(佛)이요, 교(敎)는 일체 만물 만생의 삶에 대한 것을 교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은 사월 초파일만이 아니라 일 분 일 초도 떠나지 않고

가 자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통이 자기 아니라 너무 많은, 이들도 많고 의식도 많은 게 하나로 뭉쳐서 한마음으로 선장이 돼 있다는 사실, 뿌리는 바로 그 선장과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믿지를 못하고 음식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자주 여러분의 마음을 막습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인 것 착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세련된 옷을 꼭 입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련된 옷이 또 생겼어요. 새로이 유행이 되고 그러니까 입었던 옷을 벗고 이걸 좀 입어 봐야겠다 이러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아주 죽는 게 아니고, 사대가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면 원점에서 다시금 생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생산이 되면 유행된 옷을 다시 입고 나오는 거죠.

18면으로 계속